

**“멸망이 갑자기 이르리니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스위스, 무종교인 34%...가톨릭·개신교보다 더 많아**



스위스에서 무종교인의 숫자가 크게 증가했다. 무종교인은 현재 인구의 3분의 1 이상(34%)을 차지하면서 가장 큰 그룹을 구성하고 있다. 스위스 연방 통계청이 발표한 새로운 데이터에 따르면 이는 2010년 이후 13% 포인트 이상 증가한 수치라고 예반젤리컬 포커스는 전했다.

2022년 수치에 따르면 현재 무종교인 비율이 로마 가톨릭(32%)과 개신교(21%)보다 많다. 1970년 무종교인은 인구의 1%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놀라운 성장세다. 데이터에 따르면 무종교인은 젊고 남성일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종교인의 가장 큰 연령 집단은 25-34세 그룹(42%)으로, 75세 이상 그룹은 16%에 불과했다.

남성 중 3분의 1 이상(36%)은 무종교인이라고 답했으며 여성 중 31%가 같은 답을 했다. 10명 중 1명 이상이 이전에 신앙이 있었지만 이후 신앙을 잃었다고 답했다(15%). 3분의 1은 종교계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나 3분의 1에 달하는 응답자는 “어느 정도 또는 확실히 영적”이라고 답했으며, 4분의 1 이상(28%)은 (종교가)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스위스 복음주의 공동체는 작은 규모이지만 세계 복음화에 꾸준히 헌신하고 있다. 특히 1972년 설립된 복음주의 선교협회(Arbeitsgemeinschaft Evangelischer Missionen, AEM)는 자유교회와 협력하여 선교와 전도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45개 선교단체에서 거의 1,500명의 장기 선교사를 파송했다(출처: 기독일보, 기도24·365 종합).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데살로니가전서 5:3,6,9)**

하나님, 주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스위스를 불쌍히 여기사 이들의 잠들어 있는 심령을 깨워 주옵소서. 지금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속이는 사탄의 악한 간계를 파해 주시고, 복음을 들려주사 평안하다 하는 그때 갑자기 닥칠 멸망을 피할 수 없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받게 하옵소서. 작은 규모이지만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스위스의 복음주의 공동체를 통해 복음의 생명이 증거되게 하시고, 이 땅의 영혼들이 깨어 일어나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소서.

##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1]

### ▲ 튀르키예, 금광 산사태로 광부 9명 매몰·청산가리 유출 경고

튀르키예 동부 에르진잔주의 조플레르 노천 금광에서 13일(현지시간) 산사태가 발생해 광부 9명이 매몰됐다고 AP·AFP 통신을 인용해 연합뉴스가 14일 전했다. 산사태는 금광에서 퍼낸 토사 더미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제의 토사에는 금 추출 과정에서 맹독성 물질인 사이안화물(청산가리)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져 지질학자 슐레이만 팜팔은 토사가 유프라테스강에 섞일 경우 모든 생명체가 끝장날 수 있다며 긴급하게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프라테스강은 튀르키예와 시리아, 이라크를 지나는 서아시아 최대의 강 중 하나여서 청산가리에 오염될 경우 대규모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구조 작업에도 흠에 청산가리가 함유돼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고, 환경부는 하천 하나를 차단해 강으로 흘러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았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시편 103:13-14)**

하나님, 산사태 원인이 된 토사가 사람과 자연환경에 해가 되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 맹독성 물질을 사용하는 인간의 이기심을 고하며 주의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매몰된 9명의 광부를 속히 구조해 주시고, 오염된 토사로 인해 더 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튀르키예 위성자들을 겸손케 하사 주께 도우심을 구하며 지혜를 배우게 하소서. 이때 모든 영혼에게 한 날 먼지뿐인 인생을 돌보시는 은혜의 십자가를 선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 ▲ 쿠바, 주민 배급용 닭고기 대거 훔친 30여 명 체포·“식량난 고조”

극심한 식량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쿠바에서 최근 주민 배급용 닭고기를 대거 훔친 30여 명이 당국에 적발돼 체포됐다고 쿠바 관영 언론 그란마 등을 인용, 연합뉴스가 14일 전했다. 이들은 수도 아바나에 있는 식품 창고 ‘코프마르’에서 냉동 닭고기 133t을 훔쳐 시중에 몰래 내다 판 것으로 알려졌다. 훔친 양은 한 달간 지방 도시 주민에게 공급할 수 있을 정도로, 검거된 이들 중에는 식품 창고 관리자와 보안요원도 포함돼 있었다. 쿠바 정부는 식량 부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통제하에 싼값에 주민들에게 식료품을 배급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고조되는 쿠바의 식량 부족 상황을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는 사례 중 하나이다. 팬데믹 전후로 쿠바 주민은 식량·의약품·연료·전력·소비재 부족으로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잠언 28:18)**

하나님, 식량뿐 아니라 총체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쿠바 국민을 돌봐주시고, 불의한 자들을 책망하여 주셔서 굽은 길로 행하는 모든 행실을 멈추게 하옵소서. 쿠바 정부의 눈을 밝히사 자기 능력으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음을 깨닫고 정직히 주의 도를 따르는 자들과 연합하여 국민들을 섬겨 주님의 성실하심을 보이게 하소서. 주님의 교회가 영원한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힘 있게 전하여 비록 땅을 벗어나 살아가도 하늘 소망이 실제 되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천국 백성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무법천지’ 에콰도르 비상사태 한 달...범죄혐의 6천600여 명 구금**



에콰도르 정부가 갱단의 동시다발 폭력에 맞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후 지난 30일 동안 6천600여 명의 범죄자를 체포한 것으로 집계됐다. 9일(현지시간) 에콰도르 대통령실 보도자료와 경찰 소셜미디어에 따르면 다니엘 노보아(36) 대통령이 지난달 9일 ‘내부 무력 충돌’ 상태임을 선언하고 비상사태를 내렸다.

이후 한 달 동안 살인과 폭행, 갈취, 범죄단체 구성 등 혐의로 총 6천626명을 붙잡았다. 이중 테러 단체로 지정된 22개 주요 갱단에 소속돼 각종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들은 241명이다. 총기류 2천116정, 흉기 3천38개, 실탄 14만 4천여 발, 폭발물 1만여 개도 압수했다고 에콰도르 정부는 밝혔다.

또한, 경찰은 이 기간에 약 47t의 마약과 현금 17만 달러(2억 2천600만 원 상당)도 압수했다. 30일 동안 공공민간 인프라에 대한 공격은 13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지난달 9일 과야킬에 있는 TC텔레비시온 방송국에서 발생한 무장괴한 침입 사건과 같은 달 29일 발생한 만타 검찰청사 총격 사건도 포함돼 있다.

앞서 노보아 에콰도르 대통령은 경찰관 납치 및 살해, 도심 폭발물 설치, 차량 방화, 교도소 폭동과 교도관 인질극, 방송국 점거 등 갱단 주도의 폭력 사태가 잇따르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해 갱단 소탕에 나섰다. 위험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 통행금지령도 함께 내렸으며 과야킬 등 일부 지역에서 여전히 통금이 시행 중이다.

한 달간 8만여 건의 대테러 작전을 수행한 군과 경찰은 현재 50여 명의 탈옥범 수색·검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특히 군경은 에콰도르 최악의 두 갱단으로 꼽히는 ‘로스 초네로스’와 ‘로스 로보스’ 두목급 범죄자의 행방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 두 갱단은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멕시코의 시날로아 카르텔과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CJNG)의 지원을 받아 에콰도르 내 마약 밀매 경로 주도권 확보에 열을 올리며 치안 상황을 악화시키는 주범으로 꼽힌다. 갱단 척결을 위해 에콰도르에 무기류를 지원한 미국 정부는 로스 초네로스와 그 수괴 ‘아돌포 마시아스’에 대한 제재 방침도 밝혔다.

전 세계 주요 코카인 생산국인 콜롬비아와 페루 사이에 끼어 있는 에콰도르는 몇 년 새 유럽과 북미로 가는 마약 거래 통로로 이용되면서 통제권과 영향력 확대에 나선 갱단 간 분쟁의 한복판에 놓였다(출처: 연합뉴스 종합).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이사야 55:7)**

하나님, 에콰도르 정부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할 만큼 불법과 폭력으로 인해 무법천지가 되어버린 이 땅을 불쌍히 여기사 죄에 대해 진노하시는 주의 공의를 비취 주소서. 범죄에 맞서는 정부에게 은혜를 베푸사 주님의 법으로 사건을 대처하게 하시고, 불의로 배를 채우려는 갱단을 주께서 꾸짖으사 악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때 멈추지 않는 교회의 간구로 말미암아 에콰도르의 진정한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전하는 복음으로 인해 모든 영혼이 예수를 믿고 주의 긍휼하심을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2]

### ▲ 가자지구 라파 피란민들, 이스라엘 공격 예고에 북쪽으로 역피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최남단 마지막 도시 라파에 대한 총공격을 예고하면서, 피란민들이 다시 북쪽으로 역피란 하고 있다고 14일 뉴시스가 전했다. 이미 가자지구 북부에서부터 이곳으로 내려온 피란민들은 인맥을 총동원해 가자지구 중·북부 지역에서 거처를 찾고 있으며, 피란민들이 몰리면서 텐트값도 천정부지로 뛰었다. 라파는 이집트 국경과 접한 가자지구 최남단 소도시로 전쟁 전 인구가 17만 명의 소도시였지만, 전쟁 이후 피란민이 모여면서 150만 명이 밀집해 있다. 라파 외곽 텐트촌에 머무는 피란민들은 이스라엘의 총공격 예고에 다시 가자지구 중부나 북부 지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

###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한복음 14:6)

하나님,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살길을 위해 떠나야 했던 북부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피란민들의 고통을 주께서 돌보사 친히 위로가 되어주시길 간구합니다. 비참한 전쟁의 참상에 가장 고통받고 있는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사 피란민들의 공급과 섬김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들이 참 구원에 이르도록 복음을 계시하여 주소서. 주님의 교회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파하는 일에 더욱 힘쓰게 하시고 그 빛을 발견한 모든 자가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 ▲ 미국 10대, 성경적 세계관 거부

미국의 저명한 기독교 연구자 조지 바나가 십대 청소년들이 성경적 세계관을 거부하고 있다며 “미국에서 기독교인이 보이지 않게 될 벼랑 끝에 있다”고 경고했다고 13일 크리스천포스트가 전했다. 최근 애리조나 크리스천 대학 문화연구센터(CRC)가 10대 어린이 400명, 부모 600명, 목회자 600명을 대상으로 세계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를 사하시고 유일한 구원자임을 믿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어린이가 36%, 부모는 34%, 유년부 목사는 54%였다. “인생의 진정한 성공을 꾸준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정의한 어린이는 17%에 불과했으며, 부모 19%, 유년부 목사 42%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10대 어린이들에게 성경적 세계관이 부족한 이유로 “성인들이 성경적 세계관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히브리서 11:3)

하나님, 성경적 세계관을 거부하는 다음세대가 늘어나고 있는 미국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과 경외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으로 믿고 가르쳐야 할 부모와 목회자마저 견고히 서지 못했음을 회개하게 하시고, 다음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상속하는 기성세대로 세워주소서. 그리하여 전 세대가 보이는 것이 아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증인으로 세상 한복판에 진리가 승리하는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내 이름으로 박해를 받거든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니카라과에서 1백만 전도 집회 연 미국 단체, 형사 고발 위기**



니카라과에서 1백만 명이 넘게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대형 전도 집회를 개최한 미국의 복음주의 사역 단체 관계자들이 현지 정부로부터 돈세탁 및 조직범죄 혐의로 형사 고발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

CBN뉴스에 따르면, ‘마운틴 게이트웨이’(Mountain Gateway)를 이끄는 브리트 핸콕(Britt Hancock) 선교사는 최근 “아들, 며느리와 함께 돈세탁 및 조직범죄 혐의로 니카라과 정부로부터 형사 고발을 당하게 됐다”며 “단체 소속 니카라과 목회자들 11명

도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니카라과 정부는 목회자 중 9명이 무죄라고 밝혔으나, 이들이 미국 시민 3명과 투옥된 니카라과 목사 2명의 통제하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목회자들은 무죄 인정에도 불구하고 거의 두 달 동안 감옥에 갇혔으며, 가족들과도 연락이 닿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마운틴 게이트웨이 측은 “이번 상황에 대해 슬프게 생각하고 있다. 우리는 비영리 및 신앙 기반 조직에 적용되는, 미국과 니카라과의 모든 법적 요구 사항을 부지런히 준수했다”며 “마운틴 게이트웨이의 어떤 직원도 사역을 위해 니카라과에 보낸 자금으로 사익을 취한 적이 없다”고 했다.

종교자유연구소(RFI)의 에릭 패터슨(Eric Patterson) 소장은 CBN뉴스에 낸 성명에서 “니카라과에서 미국 시민 3명과 마운틴 게이트웨이 목회자가 체포된 것은 비극적인 일이다. 또 다니엘 오르테가 정권이 니카라과의 종교 지도자들을 탄압하는 전술을 보여 주는 가장 최근의 사례일 뿐”이라고 했다.

핸콕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운동을 하라고 명하셨다는 것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에 대한 목적을 갖고 계시고 우리의 상황에 놀라지 않으신다. 박해가 있는 곳에서 교회가 성장한다는 사실은 성경에서 수 차례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수감된 목회자들의 석방과 가족들을 위해, 니카라과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요청을 했다.

한편 니카라과는 2023년 세계 기독교 박해 순위인 월드와치리스트(WWL) 50위에서 1년 만에 20위나 상승, 2024년 30위를 기록했다. 이는 라틴아메리카 및 전체 78개 WWL 국가 가운데서 가장 급속한 증가세다. 오르테가 정부는 니카라과의 무장 혁명조직인 좌파 단체 산디니스타 민족해방전선(FSLN)을 이끌고 1979년 친미 정권인 소모사 정권을 축출했다. 그 후 1985년부터 1990년, 그리고 2007년부터 현재까지 장기 집권하고 있다(출처: 크리스천투데이, 선교신문 종합).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 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 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누가복음 21:12-13,31)**

하나님, 최근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급증하고 있는 니카라과에 복음 전파가 막히지 않고 계속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길 간구합니다. 형사 고발 위기에 놓인 단체와 수감된 목회자들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바라며 인내와 소망을 갖게 하시고, 교회의 기도에 응답하사 속히 석방되게 하옵소서. 그 땅의 교회가 박해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며 믿음에 굳게 선 것이 증거가 되어, 주를 믿고 구원받는 영혼들을 계속 일으켜 주소서.

##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3]

### ▲ 콜롬비아, 교도소 비상사태 선포

콜롬비아 정부가 교도관을 상대로 한 폭력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교도소에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13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콜롬비아 법무부는 12일 카르타헤나, 하문디, 툴루아 등지에 있는 교도소에 예비비를 투입해 치안 시설을 강화하는 한편 수감자 간 약탈을 비롯한 불법 행위 차단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콜롬비아 정부의 이번 조치는 갱단들에 의해 약화된 교도소 통제권을 회복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앞서 지난 10일 카르타헤나에 있는 산세바스티안 데 테르네라 교도소 인근에서는 교도관이 오토바이를 탄 2명의 괴한에게 총격을 받아 숨졌으며 교도관들이 수감자들에게 얻어맞아 다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콜롬비아 교정 당국은 교도관을 상대로 한 각종 강력 사건이 지난 1년 새 2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잠언 11:19)

하나님, 콜롬비아 교도소에 일어나는 폭력 사태의 치안을 강화하는 것이 일시적인 효과로 끝나지 않도록 서로를 해하는 악을 멈추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게 하소서. 사태에 연루된 모든 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사 스스로 죄인 됨을 인정하는 돌이킴의 회개가 일어나 생명에 이르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때 주님의 교회를 깨우사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시고 그 빛을 발견한 콜롬비아 영혼들이 주께 돌아와 열방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생명의 통로 되게 하소서.

### ▲ 중국, 기독교 가정 자녀들 신앙 못 갖도록 강요

중국 당국이 기독교 가정 자녀들의 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전했다. 릴리즈 인터내셔널 중국 관계자들은 학생들이 기독교인 인지 여부를 선언하도록 강요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선언서는 기독교를 포기하겠다고 약속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국에서는 이미 수년 동안 어린이들의 교회 예배 참석이 공식적으로 금지됐다. 다른 파트너들은 “공산 당국이 교회를 전면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기독교에 대한 전쟁을 선포했다”고 말했다. 릴리즈 인터내셔널의 2024년 박해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내에서 박해가 심화되고 있으며 정부의 간접 수준으로 인해 공식 및 비공식 교회를 막론하고 많은 교회가 폐쇄됐다.

###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로마서 8:38-39)

하나님, 기독 신앙을 지키지 못하게 선언서를 강요하여 다음세대를 압박하고 교회를 박해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중국 당국을 붙잡히 여겨주시고 책망하여 주옵소서. 기성세대 성도들을 복음이면 충분한 자로 견고히 세우사 세상 권세와 능력으로 탄압하는 정부에 대하여 진리에 타협 없이 십자가의 전달자로 힘 있게 살게 하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다음세대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선포하오니 주께서 이들을 돌보시어 더욱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